

“용서와 화해, 진심 담기면 응어리 풀어지겠죠”

기모노(일본여성 전통의상)를 입은 여성들이지만 한복을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한국 며느리이자 딸이었다.

추석을 앞둔 26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무등부녀경로당.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일본인 여성 10여명이 시집과 광주에 사는 일본인 주부로 구성된 ‘한일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를 추진하는 모임’(이하 한일 우호추진 모임)의 회원들로 손에는 사과의 마음과 정을 담아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위대 이쁘지만, 어디서들 오셨어”를 반박하는 김주순(80) 할머니는 일본인이라는 소리에 놀랐지만 이내 손을 잠으며 반겼다.

일제강점기에 언니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오사카에 살고 있어 한국에 시집은 일본 며느리들이 반갑다 는 김 할머니는 “일제시대를 겪어서 일본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정성껏 빚은 송편을 보니 세상이 많이 변했고, 좋은 세상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거주 일본인 여성 ‘한일 우호추진 모임’

추석맞아 사과·화합 송편빚어 경로당 찾아

봉사활동을 위해 독거노인들을 자주 찾는다. 엔도 하루미(45)씨에게도 이번 행사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청하면 이해가 가능하며, 정성을 다하면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마음이 통한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아마노 기요코(54) 광주전남 대표는 “88년에 한국으로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독도나 교과서 이야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무척 좋지 않았다”

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며느리와 어머니로 자주 만나 관계가 더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일 우호추진

모임 회원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국에 시집온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요시다 히토미(35)씨는 “송편을 처음 만들어 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어 이걸 드시는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수줍음을 감추지 못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 주부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자연스럽게 명절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참석자들은 “일본에도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지만 한국처럼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풍습은 없다”며 “명절 때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부럽다”고 입을 모았다.

보성이 시택이라는 이노우에 아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주부들이 추석을 앞둔 26일 사과의 마음을 담은 송편을 빚고 무등부녀경로당을 찾아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키코(53)씨는 “차례는 지내왔지만 송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시골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아라시로 타에코(49)씨는 “뉴스를 보면 독도나 교과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지

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가수의 노래,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다”며 “오늘 같은 자리가 계속돼 한·일 양국의 교류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로당을 나오면서도 이들은 계속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사회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

다.

한편 한일 우호추진 모임은 광주에 1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교원 성폭력 징계 시효 3년서 5년으로 길어진다

양형기준도 상향

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징계양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못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성폭력 비위 유형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로 자세하게 규정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 양형 기준도 상향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게 했다. ‘비위의 정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위급에 있는 경우’는 예전 과면·해임에서 과면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강경 제의 대상에 포함해 훈·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줄 수 없게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이의결한 징계가 공립학교 교원 사례보다 가법적이고 인정되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또 학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 및 성폭행·성적조작)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장 중임심사에서 배제할 계획이 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보험설계사가 병원 운영 수십억 사기

전남경찰, 광주 K한방병원 기획실장 등 영장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205명 입건도

보험설계사가 병원을 설립해 의사들을 고용, 전문적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지인 또는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를 허위 입

원환자로 모집해 요양급여금을 가로채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K한방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여 실질적인 이 병원 운영 자이면서 기획실장 이모(여·54·보험설계사)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

인화학교 전 이사장 원심 벌금형 깨고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합소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원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이사장 강모(67)씨와 전 이사장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화랑역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면서도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강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의 석좌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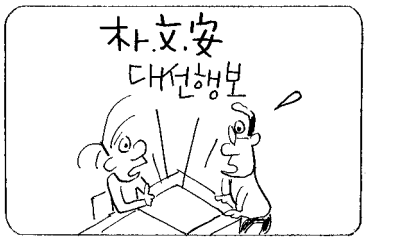
지인 또는 병원 입원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모집했다.

이씨의 동생은 상담 과정에서 허위 입원을 권유, 특정 병실에 허위 환자들이 서류상 입원 처리하거나 1인실인 특실에 수 십명을 서류상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방법으로 205명을 모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7억4000만원의 수익금을 가져간 것은 물론 본인인 남편, 동생 등을 병원에 취직시켜 1억 5000만여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658) 김장두



새 순찰차 받아오다 불

27일 오후 1시께 충남 공주시 검상동 천안고속도로에서 논산방향 235km 지점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운전하던 새 순찰차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소방관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이 차는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함께 출고된 순찰차용 YF소나타 3대 가운데 1대로,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여수서로 가지고 가던 중이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 2만장 몰카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과 동영상 촬영한 음탕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3)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등교하는 여고생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12월24일부터 9개월 동안 광주 곳곳의 여고와 대학을 다니며 사진과 동영상 2만830점을 찍어 보관해 왔다는 것.

○박씨는 ‘수상한 사람이 학교 앞에서 몰래 촬영을 한다’는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들롱.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마음도 넉넉해지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 가슴마다 정겨운 추석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 오십시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062-234-3141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3-1호